

예술인 후원 모임 '예지모' 첫 전시회...내년 1월 4일까지 호선갤러리



후원작가들을 위한 전시회를 마련한 '예지모' 회원들을 24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만났다. 왼쪽부터 최전·윤성훈·주미희 작가·박인철·박윤옥·임창군씨.

“창작의 기쁨·나눔의 즐거움 함께해요”

기업 대표·교수 등 회원 18명
역량있는 예술인들 발굴·지원
장용림·강남구·강일호씨 등
후원 화가 작품 30여점 전시

전시회 팸플릿을 처음 받아든 이들은 행복한 모습이었다. 팸플릿에 실린 그림 한점 한점을 들여다 보며 뿌듯해했고 어떤 이는 “가보로 물려줘야겠다”며 우스갯 소리를 했다.

지난 24일 광주테크노파크 차세대 자동차 전장부품 생산 지원센터에 모인 이들이 받아든 팸플릿 표지에는 ‘예지모’전이라 적혀 있었다. 예지모는 미술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예술 그룹이 아니다. 예술인들을 후원하기 위한 소박한 모임이다.

광주에는 예술인들을 후원하는 작은 모임들이 몇 개 있다. 이들의 격려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큰 힘이 된다. 또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 문화 토양을 든실하게 하는 자양분이기도 하다.

27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광주 공동 예술의 거리 호선갤러리에서 열리는 ‘예지모’전은 모임출발 1년을 맞아 회원들이 작가들을 위해 마련한 전시다.

예지모는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회장을 맡고 있는 신옥테크(주) 박인철 대표와 최전 차세대 자동차전장부품생산지원센터장 등 평소 알고 지내던 이들이 모임을 제안했다.

광주에서 예술인들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예술가들의 열정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로운 예술을 창조, 계승하고 발전을 추구하는 예술인들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보자는 데 의기투합했고 박윤옥(주)디지털테크 대표, 임창군 전남대 교수, 윤성훈 프리모 대표 등 18명의 회원들이 뜻을 모았다. 회원들 대부분이 이공 계열 출신이라는 게 이채롭다. 유동국 광주테크노파크 원장도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모임의 고문을 맡고 있는 호선갤러리 한갑수 관장과의 논의를 거쳐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방법을 모색했고, 미술인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확고히 자리를 굳힌 작가들 보다는 역량 있는 작가들을 발굴, 힘을 실어준다는 원칙을 정한 후 한 관장으로 부터 작가를 추천받았다.

회원들은 매일 한차례 화가 한명을 초청, 그림을 함께 감상하고 그림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다. 작가의 작품을 구입하고, 이번 전시처럼 초청했던 작가들의 작품을 한 데 모아 연말에 전시회를 연다.

회원들 중에는 전시회장을 둘러보는 등

예술에 관심있는 이들도 있지만, 이 모임을 통해 예술의 즐거움을 알아가고 있는 회원들도 있다.

“그림을 그냥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작가분들의 설명을 듣고 감상하면 또 새로운 느낌이 든다. 서로 그림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소통하고 그런 것도 좋다.”

“관심은 있었는데 일에 치이다 보니 미술에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이 모임을 통해 작가분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해 알아가고, 좋은 아이디어를 얻는 게 의미있다.”

첫번째 전시회에는 올해 허백련 미술상 특별상을 수상한 한국화가 이선희, 강남구, 강일호, 장용림, 주미희씨 등 후원작가들의 작품 30여점을 만날 수 있으며 주제현·하영생·한갑수씨도 잔조 출품했다. 오프닝 행사는 27일 오후 6시에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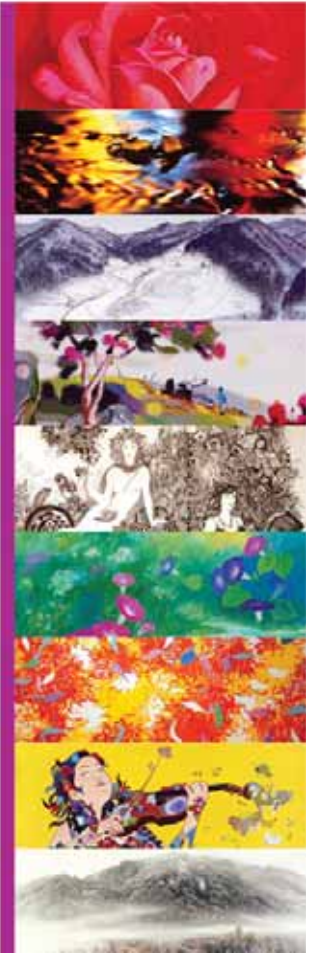
예지모는 다양한 장르로 활동 방향을 넓히고 사회봉사 활동도 시작할 방침이다.

박인철 대표는 “예술가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모임”이라며 “예향 광주에서 훌륭한 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후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시 문의 070-8191-717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선희 작 '놓아주다'



달거리 무대, 울 대장정 마무리

30일 빛고을시민문화관...참여작가 전시회도

‘행 만드는 공연’ 김원중의 달거리 2013년 마지막 공연이 열린다. 30일 오후 7시30분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

달거리 공연의 수익금은 북녘 어린이 영양 빵공장 사업본부에 전달됐고 그 액수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7330만원에 달한다. 2013년에는 11월까지 1100만원을 모았다.

‘해도 지고 달도 지고’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김원중을 비롯해 강윤숙 재즈 트리오와 소프라노 유영민이 출연하며 주홍의 샌드 애니메이션, 프롤로그(최성식·서민정·박강민)의 노래 배달 등이 이어진다.

초대 손님으로 광주 알관로제 요들클럽(회장 김철수) 회원들이 출연, ‘아름다운 베르네 산골’, ‘산의 방랑자’ 등을 들려준다.

30일에는 시민문화관 공연장 로비와 리셉션 현장에서 지금까지 달거리 무대를 빛냈던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도 마련된다. 강동권, 김영태, 류재용, 문병호, 박선주, 임근재, 이을배, 장현우, 정명돈 씨의 작품을 만날 수 있으며 판매도 한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로비에 마련된 모금함에 정성을 더하면 된다.

문의 010-3670-580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개망초 꽃봉오리 바람에 날리듯

고명인 초대전, 다음달 8일까지 대담미술관



‘고독의 시간’

대담미술관은 내년 1월8일까지 고명인씨를 초대해 ‘개망초’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개망초를 모티브로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 속의 아름다움을 다시 바라보고 그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작품 20여점이 전시된다.

작고 하얀 개망초 꽃봉오리가 화폭 안에서 바람에 날리듯 퍼진다. 하얀 꽃과 달리 전체적으로 어두운 배경은 황폐하고 삭막해져 가는 현실을 반영한 듯하다. 작가는 창작하면서 느꼈던 고독과 외로움을 오히려 삶을 긍정하고 축신하는 계기로 여긴다. 하얀 캔버스를 홀로 마주하고 보내야 했던 개인적 시간을 삶을 되돌아보고 함께했던 사람들을 추억으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작가는 이러한 정감을 담아 화해의 꽃이라 불리는 개망초를 작품에 담았다.

광주교육대 출신인 고씨는 현대 두암초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이다. 문의 061-381-0081.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40돌 강진 모란춘문학회 ‘모란춘’ 40호 발간



강진 ‘모란춘문학회’(회장 김선식)가 올해로 창립 40돌을 맞아 동인지 ‘모란춘’ 40호를 펴냈다.

문화이 위축되어 가는 상황에서 지역 문화모임이 40년에 걸쳐 동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작품집을 발간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모란춘문학회동인회는 1973년 3월 강진에서 영랑 선생의 시혼을 잇고자 하는 이들이고 차부진 선생을 추적으로 ‘강진문원’을 결

성한 것이 모태가 되었다. 이후 1978년 ‘모란춘문학회동인회’로 개칭, 오늘에 이르렀다.

40년의 역사 만큼이나 모란춘문학회동인회를 이끌어왔던 문인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한국 회교사의 3세대로 평가 받는 고(故)한옥근 작가, 수필가 고 장생주 선생, 동화작가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김옥에 작가 등이 모란춘 회원들이다.

김선식 회장은 ‘모란춘’ 40호 발간사에서

“오직 문화와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오늘에 이르렀다”며 “이 마음을 끝까지 지켜나가 60호, 100호에 이르기까지 정진하자”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번 ‘모란춘’ 40호에는 올해 타계한 한옥근 작가의 삶과 문학을 조명한 글이 특집으로 실렸다. 김옥에 동화작가의 추모시 ‘날리 날리’, 백승현씨의 ‘남도의 연극을 풍성하게 만든 회교작가 윤정 한옥근’ 등이 수록돼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

www.kjhr.com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대한민국, 미국, 독일, 덴마크, 캐나다, 노르웨이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특허번호: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 한 건축사 협회 **트라이슈머**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방수시공 4.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듯~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